FIXED INCOME ISSUE REPORT

2026. 5. 22

글로벌채권팀

김지만 Senior Analyst
jiman8.kim@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5월 금통위 Preview

동결 예상; 전망치 대폭 상향과 인상 시그널 예상

- 기준금리는 2.5%로 동결 예상. 깜짝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번 회의는 시그널링에 그치고 8월 첫 인상에 나설 것으로 판단
- 신현송 신임 총재의 첫 회의이자, 성장률·물가 전망치가 큰 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계감 높은 회의가 될 전망

5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예상, 인상 시사 가능성

다음주 28일 금통위를 앞두고 있다. 이번 회의는 신현송 신임 총재의 첫 금통위라는 점, 1Q GDP 서프라이즈와 유가발 물가 상승을 반영해 수정경제전망이 큰 폭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시장 경계감이 높은, 중요한 회의가 될 전망이다.

기준금리는 2.50%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과 물가 전망이 모두 큰 폭 상향되고 시장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도 가파르게 높아진 만큼 5월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의 물가 상승이 전쟁이라는 공급 충격에서 비롯된 만큼 섣부른 금리 대응에는 신중할 수 있고,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사는 이번 회의가 향후 인상을 위한 시그널링 단계가 될 것으로 보며, 실제 인상은 8월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신현송 총재는 취임 전 "일시적인 충격이라면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으나, 중동 리스크가 근원물가나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전이돼 2차 파급효과가 있으면 통화정책을 써야 할 단계"라고 밝힌 바 있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수정경제전망: 성장률·물가 모두 큰 폭 상향 예상

5월 수정경제전망에서는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가 모두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1분기 실질 GDP가 전기대비 1.7% 성장하며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서프라이즈'를 시현했고, 소비자물가의 경우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YoY로 1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한국은행도 4월 금통위 통방문에서 이미 직전 CPI 전망(2.2%)을 상당 폭 상회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전망에서 물가 전망치를 2%대 중후반으로 큰 폭 상향할 것으로 예상한다.
(당사 매크로팀 Houseview: '26년 GDP 2.7%, CPI 2.6%, '27년 GDP 2.4%, CPI 2.2%)

(다음 페이지에 계속)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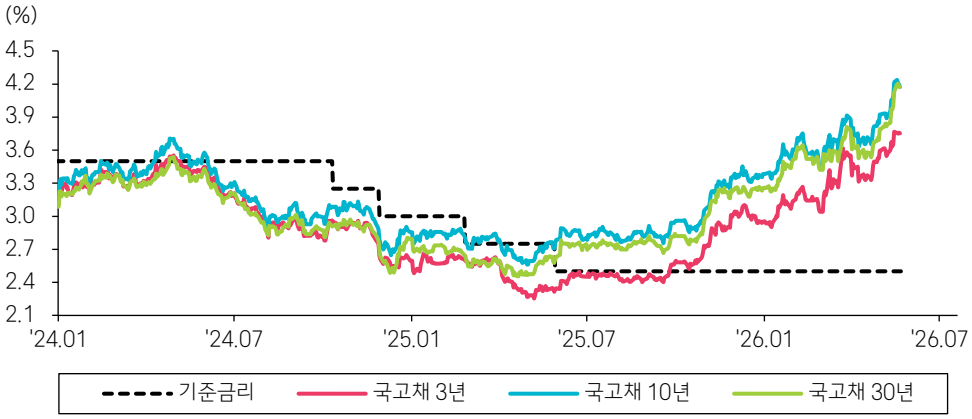
채권시장: 금리 상승 부담이 매파적 강도를 제어할 변수

관심 있게 볼 부분은 채권금리가 최근 상당히 빠르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겹치면서, 국고채 금리는 3년물 3.7%대, 10년물 4.1%대로 높아진 상황이다(고점은 국고 3년물 5/15일 3.766%, 국고 10년물 5/18일 4.239%).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은 정부 측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6월 발행물량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구두개입에 나선 상황으로, 금리 상승을 일정 부분 제어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은행 역시 이번 회의에서 지나치게 매파적인 신호를 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전망치 상향이라는 재료와 금리 상승 부담이라는 제어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만큼, 통방문과 기자간담회의 톤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가 채권시장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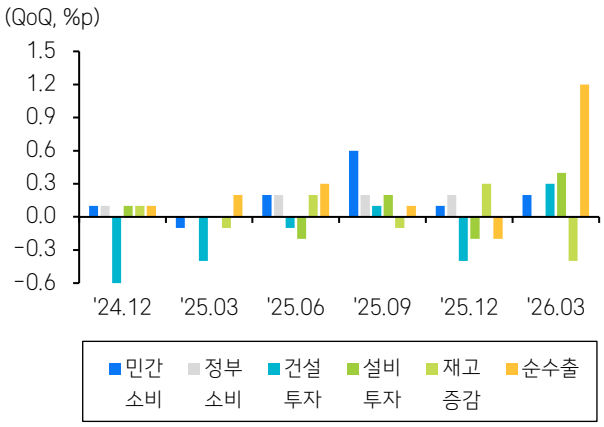
종합하면, 5월 금통위는 동결이 유력하나 신임 총재 첫 회의·전망 대폭 상향·금리 상승 부담이 교차하며 확인할 점이 많은 회의다. 채권시장은 금통위 통과 전후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만 현 채권시장이 향후 기준금리 인상 궤적을 이미 4~5차례로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고, 중동 이슈 완화에 따른 금리 하락 리스크가 추가적인 금리 상승 리스크보다 높다고 진단하는 만큼, 국내 채권금리가 오버슈팅한 상황이라는 진단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한국 기준금리 및 주요 국채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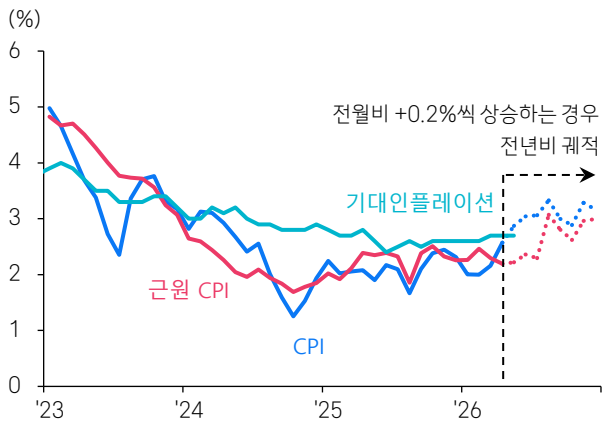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삼성증권

수출 호조로 1Q GDP 서프라이즈 기록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대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삼성증권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